

평점 2.5이하 학생단체임원 될 수 없다

기존 학생준칙 '학생생활규정'으로 개정, 학생자치활동 부문 추가

다음 학기부터 전체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2.5를 넘지 못하면 학생회나 학생자치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학생처(처장: 조용호 의학교수)는 오는 11월 실시될 학생회 간부 선출에 앞서 이와 같은 규정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학생준칙에 각종 세칙을 보완, '학생생활규정'으로 개정하고

학교측에 세부사항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에 없던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이 새롭게 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 스스로 학생회칙을 통해 따로 결정되도록 법령과 학칙 및 우리학교 제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내 단체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생활동의 집행 및 사업은 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1주 전에 행사 허가 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사후 5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원 자격부문과 관련해서는 △신

출일 기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을 필한 자.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 7학기 이내 등록을 필한 자 △전체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형사처벌 또는 유죄정확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생처 관계자는 "학업에 신경쓰지 않고 학생운동에만 매진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학생 본분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학생운동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이 기자〉

영통개발, 대학가

형성 앞당긴다.

대학문화 정립위해

적극적 대처활동 절실

흔히 대학문화를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대학주변에 형성된 대학의 거리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상업지구의 형성을 기초로 해서 구성된 대학가의 여러 문화 공간들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근접한 대학의 성격들을 반영하여 근접대학 특유의 문화형성, 대학의 대표이미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면에서 볼때 수원 캠퍼스의 문화 환경은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회기동 일대의 고유의 문화로 형성하고 있지만 역사가 깊지 않은 수원캠퍼스주변에는 이렇다 할 대학주변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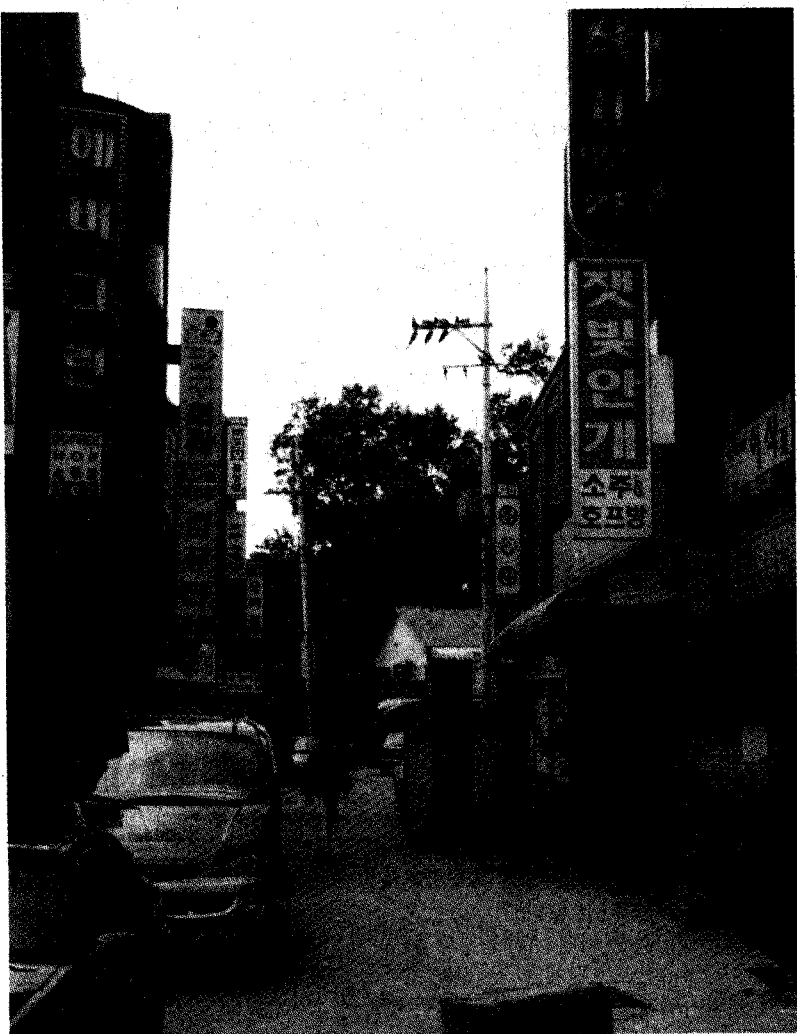
물론 수원캠퍼스에도 '다운타운'이라는 문화 공간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캠퍼스에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시설로는 식당5개, 비디오방 1개, 노래방 1개, 편의점 2개, 당구장 7개, 술집 11개, 만화방 1개, 커피숍 1개, 오락실 3개의 시설만을 갖추고 있어 규모면에서 대학을 대변할 문화의 거리로 칭하기 힘든 실정이고 상업적이나 공업장동의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통의 취약성으로 인한 소비층의 제한, 방학중 학교 공동화현상은 상

업지구내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와서 수원 캠퍼스문화공간을 소규모로 제한하고 지나친 소비성향을 띠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수원캠퍼스 문화공간의 문제는 학교앞에 형성될 영통지구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영통지구 개발은 89년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2만 1천평),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20만 5천평), 화성군 태안읍 영동리, 신리, 망포리(76만 8천평)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92년 개발계획승인, 94년 1월 실시계획승인과정을 거쳐 계획되었다. 영통지구에는 아파트 2만5천9백50호, 단독주택 5백40호를 포함해 모두 2만6천4백90세대 10만여 인구가 상주하는 소도시가 형성되어 수원캠퍼스 문화공간 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영통지구는 택지개발지구의 총사업면적 99만4천평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외곽 대도시 분당 5백40만평, 일산 4백60만평의 20%수준에 달해 문화형성을 위한 상주인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지구내 주변 3개도로 확장, 5개도로 개설, 신갈-풍덕천간 도로 확장, 상업지구와 지방도로 연결 등의 도로정비, 2007년 완공예정인 수도권 순환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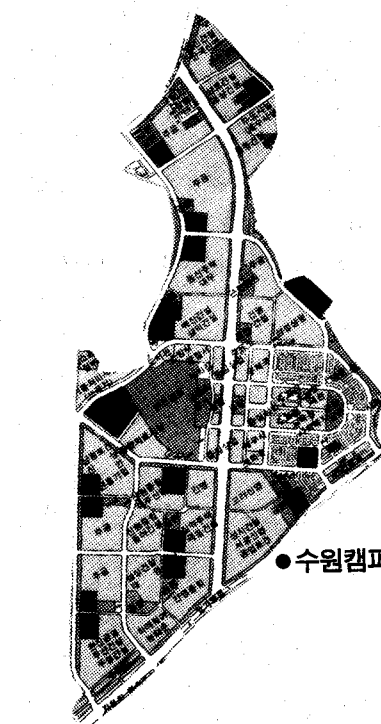
건설 등으로 교통취약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대학문화형성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입주 시작으로 이번 영통지구개발은 주민일주가 마무리되는 99년에 일단락된다. 그러나 다른 신도시 개발에서 드러나듯이 완벽한 도시계획 속에서도 도시운영과정에서 퇴색, 향락문화형성, 지역과의 지나친 문화교류로 인한 대학문화의 변질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대학은 주변 문화의 휩쓸리지 않고 대학문화를 정

립시키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갖춰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협력이라는 대학의 역할수행을 위한 프로그램과 협력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대학은 크게는 대학의 세 계화, 작게는 대학평가라는 명제 앞에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 중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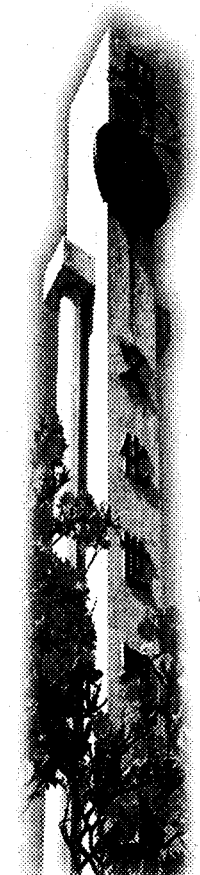
▲수원캠퍼스 주변 영통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교통의 취약성, 문화공간부족 등이 점차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른 도시개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퇴색·향락문화형성, 지역과의 지나친 문화교류로 인한 대학문화 변질등의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발달 주변의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수동적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캠퍼스 정비, 새로 형성될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구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김동운 기자〉

교시탐



말로 실천을 부르자

‘말이 말을 부른다.’

이 말은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말을 부르고, 그 말이 다시 사람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사람사이를 좋게도, 나쁘게도 할 수 있으므로 단 한마디의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한다는 선조들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강한 의지를 말로써 표현하고, 그 말이 새로운 의지를 부를 수도 있다는 뜻이 숨어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9일 한의대 신관 4층에서 6시부터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대학주보, V.O.U., 영자신문, 교학 교지편집위원회 등 언론 4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학생운동의 위기라고 말해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학생운동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위기 속에서의 학생운동의 방향과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시도해보자는 자리였다. 그러나 4시간에 걸친 긴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식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아쉽다. 물론 현 학생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몇시간만의 토론으로 간단히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논의가 불분명해지고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됐던 것이다.

하지만 화두는 던져졌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학생운동은 한층더 간부나 총학, 혹은 운동권이라 불리는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다. 운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주변의 아주 사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개선하려는 학생들의 평범하고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말이 말을 부르고, 그 말이 또다른 말을 불러 활발한 논의가 계속 진행된다면, 또 그런 논의들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져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최홍섭 기자〉

우리학교 'LCD거점 연구단'으로 선정

1백20억원 지원, TFT-LCD연구 주력

우리학교가 국내 최고 수준의 'LCD 거점 연구단(단장:장진 물리학과 교수)'으로 선정되어 그 개소식 및 현판식을 오늘 갖는다.

개인휴대용이나 자동차, 항공기 등 이동성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모든 영상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평판 디스플레이인데 이를 대표하는 제품들이 바로 LCD(액정 디스플레이)로 이는 현재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연구조합의 이번 선정으로 우리학교는 디스플레이 산업육성과 관련한 정부측의 요구와 체계적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희망에 부응, LCD의 핵

심기술개발,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원 재교육, 특허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따라서 LCD연구단은 앞으로 7년간 통상산업부,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지원으로 1백 20억정도를 받아 TFT-LCD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연구단 앞으로 시행하게 될 세부활동내용으로는 TFT-LCD의 핵심기술 개발, LCD분야의 인력양성 및 연구원 재교육, TFT-LCD 분야의 특허획득, TFT-LCD용 device의 특성 분석 등이다.

LCD거점연구단은 우리학교, 전국대,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숭실대, 홍익대 등의 16개 대학에서 50여

명의 교수와 1백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개소식에는 최수환 현대전자상무가 참석해 인준서를 전달하고 오명환 사업단장이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개소식을 마친 후에는 문리과대학 서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이어 LCD거점연구단을 방문하게 된다.

수원 20일부터 중간고사

서울 특징기간 없어

수원캠퍼스 수업과는 2학기 중간고사 공동실시과목 시간표를 발표했다. 시험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교양과목별 수강 단과대학 강의실에서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실시된다.

실시과목은 20일 미래의 소재(공대), 21일에는 수학 1(공대, 자연대)과 수학 2(공대, 자연대)이며 22일에는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 및 실험,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2가 공대와 자연대에서, 23일에는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2가 자연대에서 치워진다.

한편 서울캠퍼스는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실시된다.

경희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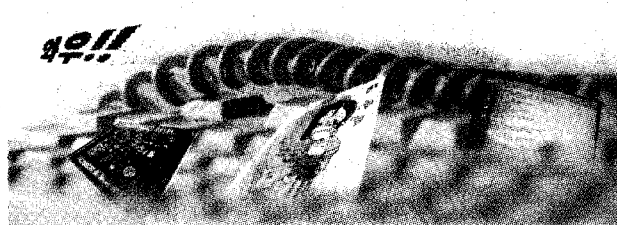


10월의 신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결혼식 전 야외촬영을 하는 이주형 동문(남, 법대86)과 이혜원(여, 동대 한문 90)씨의 모습. 이들은 지난 11일 결혼식을 올렸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마냥 행복해 보인다.

지면안내

- | | |
|----|----------------------|
| 2 | 시론 |
| 3 | 정치개혁특위의 한계와 극복 |
| 4 | 학술 |
| 5 | 한국지역주의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견해 |
| 6 | 사회 |
| 7 | 인권영화제 조기종결 |
| 8 | 문화 |
| 9 | 놀이문화로 보는 대학인의 현주소 |
| 10 | 사회기회 |
| 11 | 대안세력으로서의 국민정당 |
| 12 | Free Style |
| | 의명의 대학, 재탕 |



교내단신

16일 토목학술제 '토목학술제'가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공대 시청각실에서 토목공학과 학생회 주최로 열린다.

이번 학술제는 VTR 상영, 초청강연회, Bridge Contest 등으로 이루어지며 Bridge Contest는 토목·건축 공학부 및 토목공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행사 2일전 설명서를 학생회에 제출해야 하며 5인 이하 1조로 1, 2학년 각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도예과, 초청 특강 '나카무라 켄베이 (일본 라마 미술 대학) 교수 특강'이 오늘 오전 10시 15분 산업대학관 시청각 실에서 도예과 주최로 열린다.

'기(器)에서 Public Art 까지'라는 제목의 이번 특강은 도예학과 학생뿐 아니라 타학과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하다.

19일 산정원 체육대회 산업정보대학원(원장:이계탁 교수, 산정원)은 오는 19일 체육과학대학 운동장에서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9시 30분, 산정원 학생회장 임종필씨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에는 이제탁 산정원장을 비롯, 동문회 인사들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음대 성악과 국제콩쿨 입상 지난 9월 개최된 제37회 베르디 국제콩쿨에서 하석배(성악88)군이 최고 테너상을 받았다.

하군은 그밖에 베르디의 목소리상도 수상했으며 '시미오나토', '파비아', '버터티', '파사' 등의 국제콩쿨에서도 입상한 바 있다.

신정현 교수 세미나 개최 신정현 행정대학원장은 오는 11일부터 2일간 '21세기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서울, 문경, 고성지역 원생 2백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노재봉 전국무총리가 참석하기도 한다.

중간고사로 2주간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11월3일자 제1130호입니다.

고침

지난 1128호 7면 기사중 우리학교와 관련해 일간지에서 보도한 인터넷 시험 기사와 한·의·치대 통합기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한 것을 정정합니다. 두 사안은 현재 확실한 시행 여부 및 시행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으나 현재 기획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임을 밝힙니다.

사과문

지난 1128호 12면 성의식 기사로 인해 학내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학주보사는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로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주보사 기자일동〉